

# 玉溪 盧禎의 생애와 학술사상

김태완 \*

- 
1. 들어가는 말
  2. 玉溪 盧禎의 생애
  3. 玉溪 盧禎에 관한 기억과 이미지
  4. 玉溪 盧禎의 학술과 사상
  5. 맺음말
- 

## ■ 국문요약

육계 노진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 문신관료로서 명신으로 일컬어진다. 비록 정치, 문화, 학술 상에서 역사적으로 뚜렷한 자취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매우 온건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형제를 잃고 장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슬하의 자녀가 여럿 요절하는 등 생활 세계가 불우하였으며 그로 인해 홀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셔서 효도가 그의 삶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이런 불우한 생활세계는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관료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무리하지 않으며 노모를 극진히 모시고 주어진 삶을 무난하게 살아가려는 그의 삶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진은 향리의 사대부 지식인으로서 기초 학문을 익히고 생원시에 합격한 뒤 성균관에 유학하면서 당대 명성을 날리던 인물들과 널리 교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출사하여 관료가 된 뒤에는 전형적인 학자 관료로서 임무에 충실하

---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 E-mail: youngok0215@hanmail.net

였다. 그러나 학문을 닦고 심성을 수양하는 개인적인 성취에 관심을 두기보다 지역사회의 행정과 교화에 힘을 써서 풍속을 개선하고 향촌의 기강과 질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을 썼다. 노진은 성리학자로서 당대 학자들과 성리학의 주요 문제인 격물치지, 인심도심 등에 관해 논쟁을 진행하였고 관료로서 토지제도와 봉당에 관해 나름대로 현실적 관점에서 개혁적이고 온건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의 학술사상과 경세사상은 1차 텍스트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정확하게 전모를 밝혀내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 중기 도학자의 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사림 주도의 정치로 재편되어 가던 명종, 선조 시기 사림파의 진출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스스로 사림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규정할 수 있다. 『논어』, 『대학』, 『근사록』, 『심경』 등을 늘 가까이 하고 『대학』의 근본 이념을 평생 학문의 종지로 삼고 정주의 학설을 신뢰하였던 인물로서 전형적인 16세기 문인, 관료로서 '부지런히 배우고 문기를 좋아하며,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아버지를 사랑한' 일생을 살았다고 한 당대의 평가는 적절하다 하겠다.

**주제어** : 부친의 부재, 문신관료, 행정과 교화, 우국애민, 사림파의 정체성

## 1. 들어가는 말

玉溪 盧禎(1518~1578)은 조선 전기의 名臣이다. 그를 명신이라고 한 까닭은 이른바 穆陵(宣祖) 盛世라고 하는 조선유학이 가장 화려했던 시기, 명종에서 선조 초까지 일시에 나타난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조선유학의 석학들 사이에서 그가 학술이나 사상에서, 또는 학문의 전승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아서 학자라고 규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진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백과사전에서도 노진을 文臣이라

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점은 역시 노진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도 학자나 문장가로서 뚜렷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학술 사상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후대에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sup>1)</sup>

그렇다면 노진은 그저 그런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학자이며 문신관료라는 이미지만 갖는 것일까? 그에게는 『玉溪集』이라는 명실상부한 문집이 있으며, 학문의 사승관계도 스승으로는 유명한 학자에게 연원이 닿지는 않지만 함양 향리의 선비로서 당시 지역사회에서는 '유림의 중주'라고 일컬어지던 唐谷 鄭希輔(1488-1547)에게 수학하였고, 학문을 쌓아가던 시기에는 南冥 曹植, 一齋 李恒과 교유를 하면서 학문과 정신의 감화를 받았다. 또한 청년기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유학을 하여 본격적으로 학문에 매진할 때 河西 金麟厚, 穌齋 盧守愼, 恥齋 洪仁佑, 高峯 奇大升, 靑蓮 李後白 등 당시 명성을 날리던 인물들과 교유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문하에서는 왜란 때 여러 방면에서 활약을 한 桃灘 邊士貞(1529-1596),<sup>2)</sup> 愚溪 河孟寶(1531-1593),<sup>3)</sup> 大笑軒 趙宗道(1537-1597), 漁隱 楊士衡(1547-1599),<sup>4)</sup> 영광군수 金益福(1551-?)<sup>5)</sup>과 호란 때 절의를 지킨 桐溪 鄭蘊(1569-1641) 등을 배출하였으니 전형적인 학자이며 관료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그의

1) '文臣'이란 용어가 '文'에 뛰어난 역량을 보이면서 정계에서 활약했음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이긴 하지만, 본고는 노진의 위상을 비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문신이 갖는 포괄적 의미보다는 소극적 의미에 비중을 두어서 서술했다. 그래서 노진을 명신이라고 운운하기도 했다. 이 부분은 인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것이기에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 一齋 李恒(1499-1576)에게 수학하였으며 의병활동을 하였고,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3) 忠孝一本의 실천, 왜란 때 병으로 출전하지 못하자 獨子, 獨孫을 참전하게 하였다.

4) 왜란 때 의병장 齋峰 高敬命(1533-1592) 휘하 募糧有司로 군량미 조달을 맡았다.

5) 왜란 때 영광군수로서 현감 任啓英과 함께 인근의 여러 고을에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공을 세우고 군중에서 전사하였다.

시문학은 논외로 하더라도 문화사적으로 宣祖가 하사한 短歌로 뚜렷한 이미지 하나를 갖고 있으니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더라도 역사인물로서 자기 위상을 든든히 세웠다고 하겠다.

노진은 어떤 인물인가? 역사를 살아간 인물은 역사 속에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역사적 맥락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비교적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아간 인물이라 하더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재소환된다. 한 역사적 인물을 재소환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노진을 재소환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점에서는 노진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노진의 문집 『옥계집』은 原集 7권, 속집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집은 또 노진의 시문 텍스트를 실은 元集 5권과 묘도문자, 제문 등을 부록한 外集 2권으로 나뉘어 있다. 속집은 역시 노진의 텍스트가 3권, 李後白, 金麟厚 등 교유한 사람들이 지어 준 贈詩, 送別詩 등과 만장, 제문, 청액소, 종향에 관한 사적, 통문 등 후세의 현창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 노진의 창작 텍스트는 원집 5권, 속집 3권의 시와 문장들이다.

이런 텍스트의 규모이면 넉넉히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적다고 할 수도 없다. 물론 노진이 학문과 심성을 닦는 데 힘쓰고 언론을 펼치는 데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sup>6)</sup> 한 평가를 근거로 한다면 일견 텍스트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을 수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노진을 연구할 때 제약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학문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주된 텍스트가 서간, 논, 책문, 설 등의 글이라는 점을

---

6) 『玉溪集』 권6 「年譜」. 常曰, 爲學不在多言, 求之大學篇十六言, 足矣. 是以半世功力, 專在大學.

생각할 때 노진의 학술사상을 재구성하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한적인 텍스트를 가지고서 노진의 학술과 정신세계를 규명해 보아야 한다.<sup>7)</sup>

## 2. 옥계 노진의 생애

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한 1차 텍스트는 그 인물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연보이다. 정확한 평전이나 전기가 많지 않은 인물의 경우는 소략한 연보라도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된다. 노진의 생애도 일단은 문집에 수록된 연보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노진의 일생도 연보를 중심으로 그의 일생 이력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연보에 따르면 노진은 1518년 경상도 함양군 德谷 介坪村에서 盧友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인 노우명은 젊었을 때 鄭汝昌과 이웃하여 살았으며 정여창이 안음의 수령이 되었을 때 왕래하며 문하에서 수

7) 옥계 노진의 생애와 학술사상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 전에 우선 기존 연구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노진에 관한 연구는 그의 텍스트 규모와 역사적 활동에 건주어 아직 그의 학술과 문학세계에 관한 평가를 일반화할 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선진 연구 성과는 꽤 축적되어 있어서 그의 역사적 역할이나 그의 학문 사상과 문학세계를 어느 정도 더듬어 볼 수 있다. 이영숙의 「玉溪盧禎研究」는 그의 학문 형성 과정에서 남명학과 맺은 관계를 근거로 그의 학술을 敬義를 기본으로 한 實踐躬行과 현실지향을 바탕으로 한 求道濟世와 愛民意識으로 평가하고 居敬窮理보다 居敬行義에 그의 사상적 특색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논문의 중심 내용은 노진의 시세계를 탐색하는 것이라 그의 학술사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와는 직접적 관련성은 약하다. 또한 신태영의 「玉溪 盧禎 시의 미의식」과 김근태의 「玉溪 盧禎의 시에 나타난 풍격 고찰」 역시 시를 주제로 한 연구라 본 논문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강정화의 「玉溪 盧禎의 삶으로 읽는 정신세계」는 함양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와 노진의 생활세계가 그의 학문과 문학에 미친 영향, 함양 지식인 사회에서 노진의 위상, 남명학과 및 영, 호남 사인과 두루 교류한 인적 네트워크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사실 등 그의 생애와 정신세계를 명료하게 정리하여서 그의 생애사와 학술, 사상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학하였다. 과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고아한 정취를 즐기다가 慕齋 金安國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직할 때 천거를 받고 集慶殿, 顯陵의 참봉을 역임하였으며, 아마도 기묘년(1519)의 현량과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듬해 1520년 봄에 관직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와 3년을 지내다가 타계하였다. 이때 노진은 6세였다. 노진은 5세 때 부친이 손수 써서 전한 『中庸』과 朱子の 箴銘과 그 발문으로 학문의 정신에 원초적인 훈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진의 유년은 부친의 이른 타계가 지배하였다. 조선시대 인물의 전기적 자료에는 흔히 유년 시기의 특이한 행적을 ‘거의’ 설화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노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6세 때 부친상을 당하자 백씨를 따라 여막에 들어가서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았으며 모친이 어린 나이에 복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타이르자 탈상 때가 되면 여덟 살이나 되는데 (지각이 어느 정도 났다고 할 수 있는) 여덟 살이던 사람이 부친상을 입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도리어 설득했다거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동안에도 상주의 두건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거나, 누이에게 상중에 글을 읽는 것은 노래나 시를 읊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 글을 읽지 않겠다고 했다는 일화는 그의 남다른 효성을 잘 보여준다. 노진의 생애에서 중요한 행동의 동기가 홀어머니를 모시는 것과 관련한 일인 만큼 유년시기 부친의 타계로 인한 생활세계의 테두리 및 성장기의 준거의 상실은 이런 일화에서 반향을 엿볼 수 있다.

복을 벗고 9세 때부터 본격적인 학업의 길로 들어서는데 중형인 盧禎, 盧祥에게서 수학하여 기초 학업과 문리를 터득하고 향리에서 강학을 하던 처사 鄭希輔에게 나아가 경전을 토론하고 질의하였다. 연보에 의하면 노진이 『大學』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는데 정희보는 노진의 해석을 그대로 수긍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때부터 나름대로 유학에 관해 대체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으나 더 심화한 학문수양을 이끌어줄 스승이 없었다.

17세(1534)에 별시 초시에 응시하였는데 고시관인 김안국이 소년등과가 불행하다고 여겨서 뽑지 않았다고 한다.<sup>8)</sup>

노진은 19세(1536) 때 기묘명현인 思齋堂 安處順(1492-1534)의 따님에게 장가 들었다. 노진이 안처순 가문과 혼인을 한 일은 함양과 구례라는 지리산 권역을 둘러싼 가문의 교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요건을 이룬다. 곧 기묘명현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을사사화 이후 명종 후기부터 사림이 주도하는 조선의 정치와 학문의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노진의 인척관계 역시 장남 士訓은 조종도의 누이에게 장가들었고, 6남 士詹은 懷齋 朴光玉(1526-1593)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장남 士訓의 아들로서 손자인 勝은 寒岡 鄭述(1543-1620)의 따님에게 장가를 들었다. 노진의 누이이며 노우명의 장녀는 칠방 林崇柱에게 시집을 갔고 임승두의 장녀는 松川 梁應鼎에게 시집을 갔으니 노진과 양응정의 관계는 외숙부와甥姪婿의 사이가 된다. 月沙 李廷龜(1564-1635)가 從姪이라 하였으니 이정구의 집안과도 인척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靈川子 申潛(1491-1554)이 매부이다.<sup>9)</sup> 이처럼 순흥안씨, 함안조씨, 제주양씨, 청주정씨, 연안이씨, 고령신씨 등 노진과 관련한 통혼의 인맥으로 볼 때 도 중종, 명종,

8) 만일 이 기록이 사실에 기반을 하였다면 이 일화는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집안에서 가학으로 학문의 기초 소양을 익히고 향리의 학자에게서 학문을 닦았지만 크게 계발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진의 초기 학문 이력은 뚜렷한 사승을 통해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역량을 통해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안국은 부친 노우명과 벗이었는데 일부러 노진을 탈락시켰다면 노진을 자극하고 韜晦를 당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연보의 기록은 대조할 자료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연보가 대체로 후대에 기록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비록 사실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얼마간 설화적 전승의 기억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기록이 사실을 검증할 수 없다 하여서 의미가 반감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왜곡을 일으키거나 조작을 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9) 신잡은 노진의 부친 노우명의 사위이다. 『蘇齋集』 권9 「有明朝鮮國從仕郎行顯陵參奉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盧公墓碑銘并序」. 壻曰申潛, 行牧使.

선조로 이어지는 정치세력의 변천 과정에서 사림의 주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1537년 20살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여 이듬해 성균관에 유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학문에 매진하였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 金麟厚, 盧守愼, 洪仁佑, 李後白, 奇大升, 金繼輝 등 당시 명성을 날리던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sup>11)</sup> 또한 이 무렵 향리의 교육, 장학복지 제도인 司馬所의 운영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22세 때 과거에 응시하여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했으나 이어지는 과정에서 탈락하였고 1546년, 29세 때 회시에서 2등, 전시에서 8등으로 급제하고 본격적으로 관료의 길에 들어선다.<sup>13)</sup> 연보에 의하면

10) 부친 노우명이 一蠹 鄭汝昌의 문하에 출입하였으니 굳이 가학의 연원을 따지자면 정여창에게 소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냘픈 선을 대어서 도학의 뚜렷한 전승에 닿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노진의 정치적 행적에는 16세기 사림의 일반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의 활동 시기에는 동, 서 봉당이 형성되기 전이지만 나중에 서인에 속하는 사람이나 동인에 속하는 사람과도 두루 교류하였으므로 그는 명중, 선조 연간에 아직 사림이 분화하기 전에 사림주도의 정치체계를 형성하는 데 나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재훈, 「玉溪 盧禕의 정치사회적 활동 -명중·선조 연관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45집, 2008, p. 165.

11)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을 하고 대과를 보아 관료로 출사하는 것이 조선시대 문인관료의 전형적인 사회진출의 통로였던 만큼 성균관에서 교유한 학자, 지식인은 관료계에 진출한 뒤에도 인맥을 형성하며 학술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마련이었다. 노진 역시 당대의 대표적인 명사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그의 학문과 정치이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교유 문인의 범위는 수작한 시는 물론 묘도문자나 제문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할 수 있는데, 노진 역시 조식, 신잠, 이정, 김인후, 오건, 洪彦弼, 柳景深, 姜翼 등의 제문을 지었고, 물론 이들 제문 가운데에는 홍언필의 제문처럼 대리로 지은 것도 있다. 또한 임훈, 노수신, 박순, 정유길, 송기수, 정대년, 김성일, 이순인, 조종도, 김천일, 이후백, 양응정, 심의겸, 정철, 이식, 정언신 등 당대의 명류가 단독으로 또는 연명으로 노진의 제문을 지었다. 이들 제문은 모두 『玉溪集』에 수록되어 있다.

12) 『玉溪集』 卷5 「司馬齋題名錄序」 참조.

13) 연보에는 29세(1546) 때 회시와 전시를 거치고 김안국의 적극 천거로 權知承文院 副正字에 제수되어서 관료의 길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17세(1534) 때 응시한 별시에서 일부러 노진을 뽑지 않았다가 청장년에 이르러 회시와 전시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관료의 자격을 얻게 되자 적극 천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노진의 생애와 활동 이력에서 김안국은 아주 뚜렷한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

23세 때 아들 사훈이 태어났는데, 이 해부터 생애 내내 고통스러운 병이 따라다녔다고 한다.

유년의 시기에 부친을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 33세에 부재한 부친의 대체자로 여겼던 백씨의 상을 당한 일은 노진의 원초적 정서와 심리세계를 형성하는 바탕이 된다. 이후로도 노진은 일생 여러 차례 혈친의 상을 당한다. 43세에는 申潛에게 출가했던 누이를, 49세에는 넷째 아들 士諤을 57세에는 아우 盧祿과 다섯째 아들 士詹을, 58세에는 모친상을, 60세에는 셋째 아들 士訥을 잃었다. 이처럼 삶의 과정에서 잇따른 친족의 상은 통과 의례로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노진 경우에는 유년기의 생활세계의 근본 토대가 흔들렸으니, 이른바 여러 차례 慘慼을 당했던 것이다. 참척은 부모나 손위 형제의 사별과는 또 다른 실존의 참극이다. 또한 청년기부터 일생동안 줄곧 따라다니며 실생활을 괴롭힌 신체의 고통은 그의 학자로서, 관료로서 이력과 그의 독특한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청년기에 노진이 겪은, 물론 조선사회의 향방을 결정짓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도 노진의 處世觀에 영향을 미쳐서 유가 성현의 서적을 읽고 程朱의 글을 연구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늙을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546년에 태인 현감으로 와 있던 申潛과 그의 모부인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서 회시와 전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권지

---

당히 인상적이다. 김안국은 중종 대에 성리학 중흥에 많은 기여를 하였는데 경상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산림처사로 있던 부친 노우명을 음직에 천거하였으며 노진의 장래에도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중망 있는 인사의 기대는 청소년의 시기에 강력한 성취동기가 된다. 그러나 연보의 이 기록은 착오가 있다. 왜냐하면 김안국은 이미 1543년에 죽하였기 때문이다. 『玉溪集』外集「年譜」. 槐院擇取同榜, 先生不屑, 不現身而下鄉. 不規則不取, 例也. 金慕齋素知先生之名, 稟都堂, 特命取焉. 授權知承文院副正字.

승문원부정자를 받아 관료세계에 진출하였다. 이후 무난하게 승진을 하면서 내외직을 번갈아 역임하였다. 그가 외직을 자원하거나 외직을 선호한 주요 동기는 언제나 노모의 봉양이었다. 조선사회에서 관료가 효성이 지극하고 효도로써 모범이 된다는 것은 국가권력과 정치이념의 정당성을 인민에게 설득하는 중요한 동기이다. 맹자는 도덕과 인륜의 사회화를 사회주도층의 자기 도덕의식의 동심원적 확산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親親-仁民-愛物<sup>14)</sup>이나 '내 노인을 노인으로 공경하여 남의 노인까지 공경하고, 내 아이를 아이로 보살피어서 남의 아이까지 보살핀다.'<sup>15)</sup> 하는 과급의 논리는 지역사회의 인민도 수령의 효의 덕목에 신뢰를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한다. 친족의 가족윤리와 사회의 국가윤리를 그 작동 원리에 있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다른 차원의 원리를 감지할 수 없었던,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라는, 개인(私)과 국가(公) 사이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조선 사회의 인민은 효성이 지극한 수령이라면 향리의 인민들도 부모처럼 여겨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과거 동아시아 정치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군주(관료)와 인민의 관계에 대한 은유로 흔히 차용되었다.

노진의 생애에서 인상적인 이력 가운데 하나는 경연에서 이황을 변호한 사건이다. 노진은 1556년, 39세 때 외직에 있다가 발탁되어서 경연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간간이 사직을 하고 낙향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1560년, 43세 때까지 중앙관직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하면서 꾸준히 경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558년, 경연시강관으로 있으면서 경

14) 『孟子』「盡心·上」.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15) 『孟子』「梁惠王·上」.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연에서 『通鑑綱目』을 진강하였는데 「齊紀」의 王蠋이 관직에서 물러난 사건을 토론하였을 때 명종은 ‘어진 선비가 나라를 떠나는 것(去國, 관직을 버리고 물러남)은 군신의 의리를 모르는 행위’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노진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관료가 나라를 떠나서 나라를 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라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관직을 버리고 떠나는 자의 심정은 결코 홀가분하지 않고 도리어 서글픈 것이다. 왕축이 나라를 떠난 것은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왕축은 임금 섬기는 의리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제나라가 망할 즈음에 정작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대부들은 아무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려 하는 자가 없었지만 은퇴하고 물러났던 왕축은 나라를 위해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나라를 저버린 것이 아닌 증거이다.<sup>16)</sup> 전국시대 연나라가 제나라를 침략했을 때 실제로 왕축은 초야에서 손수 경작을 하면서 살다가 쳐들어온 燕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켜서 죽음을 택했다. 이 사건으로 제나라의 대부들은 분발을 하여서 후손을 찾아 제나라의 명맥을 잇게 했다.<sup>17)</sup>

명종과 노진의 이 토론에는 퇴계 이황의 빈번한 사직을 배경으로 한

16) 『玉溪集』外集「年譜」. 嘗於經筵, 進講綱目及齊紀王蠋去國事. 上曰, 賢士而去國, 不知君臣之義也. 先生啓曰, 去國者, 何嘗忘國. 不能忘國而敢於去國, 其情誠可悲也. 諫不從言不行而去, 則如王蠋, 能得事君之義者也. 是故齊之亡也, 在列之臣, 無一人捐身致忠, 而在野之王蠋, 獨能抗節徇國. 此去國者不負國之驗也. 上默然. 蓋是時, 退溪李先生累辭召命不起, 明廟頗懷疑沮之心. 故因王蠋事, 所教如是. 先生之指陳剴切, 深得納誨之道矣.

17) 『史記』「田單列傳」. 燕之初入齊, 聞畫邑人王蠋賢, 令軍中曰, 環畫邑三十里無入, 以王蠋之故. 已而使人謂蠋曰, 齊人多高子之義, 吾以子爲將, 封子萬家. 蠋固謝. 燕人曰, 子不聽, 吾引三軍而屠畫邑.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貞女不更二夫. 齊王不聽吾諫, 故退而耕於野. 國既破亡, 吾不能存. 今又劫之以兵爲君將, 是助桀爲暴也. 與其生而無義, 固不如烹! 遂經其頸於樹枝, 自奮絕脰而死. 齊亡大夫聞之, 曰, 王蠋, 布衣也. 義不北面於燕, 況在位食祿者乎! 乃相聚如莒, 求諸子, 立爲襄王.

다. 명종은 재위 8년째(1553) 20세의 나이로 문정왕후의 그늘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親政을 시작하였으니 재위 13년째가 되는 이 시점은 명종도 25세의 정력이 왕성한 청년기이며 정치 경험도 쌓여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로대신이나 명망 있는 신하가 주위에서 왕정을 돕기를 바랐을 터인데 이황은 자주 벼슬을 사양했기에 군주로서도 실망을 하고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왕정사회에서 관료가 뚜렷한 이유 없이 벼슬을 사양하는 것은 군주의 성의와 정치지향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다. 명종은 집권 과정에서 대운과 소운의 갈등과 투쟁, 외척의 전횡을 겪어서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잡아야 했기에 점차 다시 일어나는 양식 있는 학자관료 세력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유교사회에서 군주와 신하의 사이는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며 그 의리의 담보물은 관직이다. 상호 간에 의리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신하는 군주에게 받은 관직을 내놓고 물러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관직을 받은 이상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기 개인의 사적 이익을 내려놓고 공공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향촌에 지역연고와 경제기반을 갖고 있던 사대부 지식인은 과거를 통해 출사하고 관직을 받아야만 중앙의 공인을 받아 향촌의 지역사회에서도 우월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료로 출사하는 일은 사대부 지식인의 매우 강력한 성취동기였다. 그러나 정치현실은 늘 갈등과 투쟁의 장이었기 때문에 출처와 진퇴는 오로지 권력투쟁을 일삼는 권력지향의 관료가 아니라면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미묘한 갈등의 機微이다. 공자와 맹자가 고국의 권력자들이나 열국을 주유하는 동안 권력과 보인 긴장의 관계는 출처진퇴의 모델이다. 노진이 이황을 위해 변호한 내용은 이황의 사직이 무책임한 자기보신의 사적 행위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양심적 관료로서 책임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노진은 47세(1564) 때, 향리의 秋潭에 두어 칸 집을 짓고 孝弟의 의를 편다는 뜻을 담아 申義齋라 편액을 하고 浴沂의 흥취를 누렸다. 이에 찾아오는 학자와 강학과 담론을 하였고, 아우, 조카들과 함께 재물과 곡식을 출연하여 義藏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학문을 강론하고 향촌사회의 교화와, 지방행정 기관을 보조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와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향촌을 기반으로 한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거의 의무에 가까운 행위이며 이로써 존재의의를 담보할 수 있었다.

그의 지방행정에서 보인 치적으로는 연보의 정보 가운데 특히 金繼輝의 평가를 눈여겨볼 만하다. 1572년, 55세 때 12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서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7월에 해변 지방을 순찰하다 근친을 하고, 脾病과 설사로 조리하다 피로가 쌓이고 증세가 심하여 사직하였다. 본도에서 재직할 때 송사 처리에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여서 고을에서는 폐단으로 여겼으나 후임으로 온 김계희가 꼼꼼히 살펴보고서 ‘덕행과 문학의 선비면서도 관리의 직무를 겸하여 통달했다.’ 하고 칭찬하였다.<sup>18)</sup> 김계희의 평가는 학자관료의 시각에 의한 것이라 실제 행정의 당否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관점에서는 썩 효율적인 행정관료의 면모를 발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0대 이후로 노진은 홍문관, 사간원, 승정원, 사헌부, 예문관과 육조의 장으로 중앙 고위관직을 잇달아 제수받았으나 노모의 봉양과 신병을 구실로 번번이 사직소를 올려서 실제 직책을 수행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신에 진주, 전주, 남원, 담양, 곤양 등 향리에서 멀지 않은 지방 수령이나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어서 노모를 모시는 데 그나마 도움

18) 『玉溪集』外集「年譜」. 金公繼輝代按本道, 察先生處訟之迹. 曰, 平日不料德行文學之士兼通吏務. 乃如許也. 金以文吏稱者也, 其後入都, 又與知舊, 稱善不置云.

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관료 이력에 관해서는 “벼슬에 나아가면 담담한 마음을 지녔고 항상 물러나려는 뜻을 두었다. 벼슬한 지 30년에 조정에 있었던 시일은 통틀어 3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은혜로운 전지가 두텁고 급박하지 않으면 억지로 몸을 일으킨 적이 없었다.”<sup>19)</sup>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

조선시대 전형적인 지식인 학자이며 사대부 문인관료로서 노진의 생애와 이력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내세울 만한 학문적 사승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가학을 통해 일두 정여창과 연결고리가 없지는 않지만<sup>20)</sup> 정여창은 노진이 태어나기 10여 년 전에 타계하였다. 본격적으로 수학을 하던 시기에는 조선시대 도학의 학맥과 직접적인 전승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적 연고가 가깝거나 인맥관계로 연결되는 학자들, 곧 일재 이항, 남명 조식, 퇴계 이황, 갈천 임훈 등 선배 학자를 존경하고 해서 김인후, 소재 노수신 등과 교류하면서 학문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학문과 사상 형성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주된 텍스트는 『논어』, 『대학』, 『근사록』, 『심경』 등이었다. 그는 일생 자품의 승진에 따라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대부분 사직을 하고 외직을 청하거나 내직의 대체로 외직에 제수되어서 지방행정을 돌보면서 노모의 봉양에 힘쓰고 독서와 성찰을 주된 학문의 자세로 삼았으니 일반적인 도학자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19) 『玉溪集』卷6 「諡狀」. 恬於進取, 常有引退之志. 筮仕三十年, 在朝日月, 不滿三年. 非有恩旨敦迫, 未嘗強起也.

20) 『玉溪集』卷6 「神道碑銘」. 名其堂曰信古, 卽先生考也. 諱友明, 受業於一蠹之門.

### 3, 옥계 노진에 관한 기억과 이미지

우리는 특히 역사적 인물에 관해서는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외부의 대상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는 보는 것으로 출발한다. 물론 감성적 직관의 통로가 오로지 눈인 것은 아니지만, 귀로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손끝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성적 인식은 우리에게 하나의 相(이미지)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 또는 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지만이 실재하는 것이다. 대상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생소멸하고 있는데 우리 의식에 형성된 하나의 이미지는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는 흔히 선입관이나 주관, 편견 따위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고 상, 이미지가 언제나 인식을 배반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식의 재료를 구성하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식의 내용으로서 우리의 의식에 상이 하나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상은 왜곡된 것이든 근거가 있는 것이든 의식 속에서 자기자리를 차지하고서 다른 인식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역사적 인물의 경우, 우리가 그에 관해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어려서부터 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설화든 이야기이든 전 기물이든 학습의 과정이든 역사적 인물을 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의 상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노진도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매우 뚜렷한 이미지 하나를 갖고 있다. 그 이미지는 매우 구체적이며 또한 의미 있는 것이다. 국문학에서 노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선조가 노진에게 하사했다는 시조 한 편이다. 그의 문집 속집에 수록된 御製歌에는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선생이 글을

올려서 귀양을 아뢰고 바야흐로 한강을 건너려 할 때 선조가 특별히 이 노래를 지어서 은쟁반에 써서 내시를 시켜 뒤따라 보내서 하사하였다.”<sup>21)</sup> 시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면 가라하고 가면아니오니  
오노라 가노라니 불날히 전혀 업니  
오늘도 가노라하니 그를 슬허호노라<sup>22)</sup>

시조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깝고 아쉬움이 진솔하게 묻어난다. 노진은 명종 초기 윤원형, 이량 등 권신이 진흥을 부리던 시기에 관계에 진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체제의 인물이었지만 깊이 닦은 것으로 보이는 학문과 교유 관계에 있던 사림의 학자들, 타고난 성품 등으로 무난하게 내외직을 번갈아가면서 충실히 관료로서 이력을 쌓고 치적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선조는 왕통의 방계 혈통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하여서 당대의 관념으로서는 권력의 정통성이 약하여서 사림 세력의 적극 협조를 기대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구체제를 축출하는 데 나름의 제약이 있어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군주를 교육하려 드는<sup>23)</sup> 사림의 압박에 견주어 볼 때 노진의 태도는 선

21) 『玉溪集續集』卷1 「御製歌」. 先生上章歸養. 方渡漢江時, 宣廟特製此歌, 寫于銀鈔, 追遣中使以贈之.

22) 선조가 노진에게 내렸다는 이 시조와 관련 일화는 조선시대 君臣의 상호신뢰와 군신의 知遇를 대표하는 인상적인 사례이다. 성종이 兪好仁(1445-1494)에게 주었다는 다음의 시조, “이시럼 브디 같다 아니가든 못할소냐/무단(無端)히 네 슬터냐 남의 말을 드렸느냐/그러도 하 아달고야(애도래라) 가는 뜻을 날러라.”와 쌍벽이다. 이밖의 사례로서 세자 시절의 仁宗과 세자시강원에 있었던 金麟厚의 墨竹圖에서도, 비록 허망한 꿈으로 화하고 말았지만 聖君과 賢臣(賢相)의 이상적 만남의 희망과 기탁을 확인할 수 있다.

23) 사림의 정치 구상은 군주에게 立志-求賢-委任이라는 君臣共治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정치적 주체로서 한 축을 담당한다는 야심찬 기획이다. 정재훈, 「玉溪 盧禎의 정치 사회적 활동 -명종·선조 연간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第45輯, 2008, p.

조로서는 치적의 스트레스를 자극하지 않는 점에서 선조가 남다른 신망을 보이고 그의 존재를 통해 많은 부담을 덜었을 수 있다. 노진 역시 선조가 초기에는 옛 제왕을 본받으려 하더니 차츰 근세의 관례적인 규범을 따르고 평상적인 것만 추진하여서 적극적 정치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평을 하였다.<sup>24)</sup> 그러나 노진 스스로는 삼사와 육조에 잇달아 제수되어서 요직을 역임하였지만 대부분 사직을 하였고 재직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정국을 주도할 만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추진하지는 않았다.<sup>25)</sup>

그가 吳健에게 충고한 사건은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일화이다. 오건은 조식을 따라 배웠고 늦게 과거로 出身하였지만 문벌이 낮아 순조롭게 승진을 하지는 못했다. 이조 정랑이 되어서 公道를 넓히기에 노력하였고 인간됨이 순박하고 실질적이며 과감하여서 흔들림 없는 추진력이 있었다. 이에 원망을 많이 받기도 하였다. 그와 친분이 있던 노진은 오건을 다음과 같이 나무랐다. “그대가 초야에서 출세하여 현달하였으니 그대에게는 과분한 일이다. 따라서 마땅히 뒤로 빠지고 조심해야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선불리 자기 소견을 고집하여서 많은 사람의 노여움을 자초하는가!” 오건은 노진의 이런 충고를 아랑곳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분노가 더 심해졌고 선조도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없어서 마침내 오건은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sup>26)</sup>

이런 노진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그를 보는 사람에게는 ‘비록 착하다는

---

152 참조.

24) 『宣祖修正實錄』 선조 3년(1570) 12월 1일 기사.

25) 노진의 문집 『玉溪集』은 원집과 속집을 막론하고 분량에 견주어 輓詩와 제문, 그리고 辭免疏狀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만시와 제문은 지식인 네트워크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 논외로 하고 사면소장의 경우는 그의 행적의 지향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6) 『宣祖修正實錄』 선조 5년(1572) 윤2월 1일 기사.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시국을 구해낼 재주는 없었으며, 심지어 비록 시국에 관한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을 터이니 책할 것까지도 없다.’<sup>27)</sup>는 혹평을 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그의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이다. 『실록』의 노진 졸기에는 칭찬일색이다.

노진은 성품이 온화하고 장중하였으며 지조가 확고하였다. 간신들이 권병을 친단하던 때에도 한 번도 행적이 물들지 않았고 벼슬살이도 청렴하고 근실하게 하였으므로 상이 특별히 포상을 내리서 아름답게 여겼다. 그는 관리의 사무에도 정밀하고 민첩하였다. 金繼輝가 영남 관찰사의 후임이 되어서 그의 행정의 치적을 조사해 보고 감탄하여서 말하기를, “덕행과 문학에다 관리의 사무까지 이처럼 통달했을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였다. 그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올렸다. 나중에 文孝란 시호를 내리니 세상 사람들은 그가 시호를 받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28)</sup>

이에 반하여 율곡 이이의 평가는 아주 박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역사인물에 관한 평가는 묘표, 묘지, 비명과 같은 묘도문자나 제문에 보이는데, 추모문학은 일반적으로 亡者의 살아생전의 이력을 아름답게 추모하는 내용이라 논외로 하고 당대 인물의 다양한 기억을 들춰보아야 한

27) 『石潭日記』 卷上, 萬曆 元年(1573) 12월 기사. 앞에서도 말했듯이 역사의 인물은 우리에게 흔히 이미지로 먼저 다가온다. 그에 관해 아무리 객관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만약 어린 시절에 읽은 위인전이나 역사관련 교양서적, 또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으로 형성된 이미지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는 객관적인 정보나 인식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시는 역사보다 진실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지가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李珣 역시 노진에 관한 자기 의식 속에 형성된 이미지에 관한 것이 아닐까?

28) 『宣祖修正實錄』 선조 11년(1578) 8월 1일 기사. 禩和厚莊重, 操守甚確. 當權茲之世, 一不染跡, 居官廉謹, 上特褒賜以美之, 其吏事亦精敏. 金繼輝代按嶺南, 考其政績, 歎曰, 不料德行·文學, 兼通吏務, 乃如許也. 鄉人立祠祀之. 後賜諡文孝, 世稱其不愧易名.

다. 그런 점에서 이이의 『石潭日記』는 당대 정계, 학계 인물과 동시대를 살면서 목격한 그대로 당사자의 언행을 가감 없이 기술하였기 때문에 비록 역사기록이라 하더라도 당파적 관점을 피할 수 없는 실록이나 기억에 의존하거나 후세에 추앙을 할 목적으로 기록된 묘도문자, 추모문학의 기술보다 실체를 더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울곡 이이는 노진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헌대부 전 이조 판서 노진이 즐하였다. 노진은 느리고 둔하며 말재주가 없었으나 마음에 선을 좋아하고 선비를 사랑하여서 당시 매우 명망이 있었다. 집안에서는 모친을 섬김에 매우 효성스러워서 고을 사람이 모두 그 착함을 심복하였다. 다만 經濟의 재주가 부족하여서 時事を 세워서 밝히지 못하고 다만 자기 지조를 지킬 뿐이었으며 또한 사양하거나 받아들이는 절도를 가려내지 못하였다. 州縣에서 보내는 뇌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심지어 산같이 쌓였다. 崔永慶이 옳지 않게 여겼다. 당시 士論이 바야흐로 尹斗壽를 탐욕스럽고 방종하다 하였다. 최영경이 노진의 고향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의 고을에도 윤두수가 있는데 알고 있는가?” 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최영경이 말하기를 “노진이 어찌 윤두수가 아닌가!” 하였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대체로 介潔한 점에서 노진은 부족하였다.<sup>29)</sup>

아예 권력을 전횡하는 척신이나 권신은 말할 것이 없지만 선비 학자로서 發身한 관료가 탐욕스럽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거나 介潔하지 않다는 평은 아주 나쁜 평이라 할 수 있다. 이이의 기록을 일단 수긍하고 생각해 보자면 노진이 왜 과거 벼슬살이 한 고을에서 보낸 뇌물을 받았는

29) 『石潭日記』卷下, 萬曆 6年(1578) 8월 기사. 資憲大夫前史曹判書盧禎卒. 禎遲鈍訥言, 而其中好善愛士, 故甚有時望. 居家事母甚孝, 鄉人皆服其善. 但乏經濟之才, 不能建明時事. 只能自守, 而且不能擇辭受之節. 州縣賂遺, 無所不受, 至於山積. 崔永慶不韙之. 時士論方以尹斗壽爲貪縱. 永慶謂禎之鄉人, 曰, 汝鄉亦有尹斗壽. 其知之乎? 鄉人, 曰, 誰也? 永慶, 曰, 盧禎豈非尹斗壽乎! 聞者皆笑. 蓋介潔是禎所短也.

지 그의 심리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의 상황이나 형편을 더듬어서 변호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 기록은 이이의 주관적인 시각으로 걸러진 기술인만큼 엄밀하고 객관적인 정보라고 할 수는 없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구성하는 세계는 저마다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다양하고 어찌면 대립적인 시각을 나란히, 가능한 같은 비중으로 놓고 볼 때 그나마 실상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sup>30)</sup>

노진의 행위이력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역시 효도이다. 노진에 관한 평가는 언제나 남다른 효성과 온화하고 모나지 않은 성품을 일컫는다. 노진의 문집 속집에는 단가로 노진이 모친의 壽宴에서 酬酌한 獻歌와 答歌가 수록되어 있다.<sup>31)</sup>

日中 金가마고 가지 말고 니 말 드러  
너는 反哺鳥라 鳥中之曾參이니  
오늘은 날 위하야 長在中天 ㅎ얏고다

國家 太平호고 萱堂에 날이 긴제  
머리 흰 判書 아기 萬壽盃 드리는고  
每日常 오늘 굿터면 성이 무슴 가식리

30) 실록과 이이의 기록은 모두 卒記 양식인데 실록의 줄기는 한 인물을 역사적으로 공식 평가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이이의 기록은 일기 양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적 문학에 속한다. 그런데 이이는 어찌면 孔子가 『春秋』를 편집하고 司馬遷이 『史記』를 기록한 심정에 다가간 듯 당대의 사정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의도를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적 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일기이지만 실상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임무를 자임한 기록물인 것이다.

31) 조선시대 명사들 가운데에는 남다른 효도로 미담을 남긴 사례가 많다. 龔巖 李賢輔의 경우에도 부모의 수연에 老萊子처럼 때때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 하고, 그가 同副承旨에 제수되고 휴가를 받아 觀親하러 돌아올 때 모친이 “먹디도 豆餠샤 승정원 선반야 /노디도 豆餠샤 대명던 기술가/ 가디도 豆餠샤 부모 다향 걸히야”라고 하는 宣飯歌를 지어서 錦衣還鄉하는 아들을 맞이하였다고 한다. 立身揚名하여 부모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라는 유교적 효도관이 잘 드러나는 일화이다.

아마도 一髮秋毫 聖恩잇가 ㅎ노라

노진이 보인 정치이력과 행동양식의 동기는 무엇이였을까? 병약한 체질과 유년기의 부친의 부재, 평생 노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원초적 동기가 그의 삶을 이끌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는 개인적으로는 효성이 지극하고 착한 아들이며, 관료로서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개혁적 정치가라기보다는 온건하고 화합을 추구하며 현실을 잘 건사하는 관료로서 좋게 말하여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이미지를 당대에도 내보였던 것이다. 물론 노진은 지방관으로서나 사림주도의 사회로 전환하는 조선 명종, 선조 연간에 나름의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sup>32)</sup>

#### 4. 옥계 노진의 학술과 사상

노진이 활동하던 시기는 성종-연산군-중종(과 인종)을 거치면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조선사회에 점차 만연해 가던 시기였다. 명종, 선조(임진왜란 이전)의 치세는 바로 새로운 사회, 정치체제를 지향한 사림이 점차 정국을 장악하고 정치를 이끌었던 시대이다. 노진은 경상우도의 함양 태생으로서 향촌의 명문가문에서 태어나 부친의 연고로 조선 전기 학문의 도학적 계보를 잇는 鄭汝昌과 학연을 갖게 되고 또 기묘명현인 安處順의 따님과 혼인을 함으로써 혼맥으로도 사림과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자를 통해 기초 학문을 익히고 나아가 이항, 조식, 이황 등 선배학자들을 통해 학적 교류를 함으로써 사림으로서 학

---

32) 지방 수령으로 재직할 때 『養正編』을 간행한 일은 향촌의 교화라는 사림과 지식인의 정치지향의 일환으로서 『小學』의 간행과 보급운동에 비견되기도 한다. 정재훈, 「玉溪 盧禎의 정치사회적 활동 -명종·선조 연건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第45輯, 2008, p. 165.

문적, 정치적 정향을 형성하였다. 그는 학연과 인맥, 혼맥 등을 통해 사림과의 흐름에 함께하였다. 그러나 노진의 학술과 사상을 탐색해 볼 만한 자료는 조선시대 다른 학자들의 텍스트와 견주어 봐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sup>33)</sup> 따라서 그의 학술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제약 없이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

『玉溪集』에서 학술, 사상의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별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권1에 수록된, 月課로 지은 「三無私賦」, 소년 때 지은 「敬賦」와 권4에 수록된 편지로서 「答李龜巖剛而書」와 「答李龜巖別紙」, 「答姜仲輔小牘」, 「與盧寡悔書」와 「再辭副提學疏」, 「辭禮曹判書疏」, 「四館論復兩宗疏」, 권5에 수록된 「重刊養正編跋」, 월과로 지은 「書尊堯集後」, 「書昭烈永安遺詔後」, 「范仲淹答歐陽脩論不諫書」, 「均田議」, 「調停辨」, 「奏廣寧都御史某請遼東兵馬勿調赴蘇州等處專力防備以禦寇賊之患」, 「死病無良醫論」 및 스승과 학생 사이에 학문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流弊를 묻는 策題와 속집 권3에 수록된, 「記夢」, 「張橫渠養蕉說」, 「四皓有無辨」, 「渝金櫃盟論」, 「觀過知仁論」과 역대 치란의 과정에서 제도를 인습하거나 개혁을 하는데 세대마다 개혁과 인습이 저마다 달라지는 까닭을 묻는 책문, 예로부터 군주는 모두 정치안정을 추구했지만 늘 위태하고 패망하게 되는 까닭을 묻는 전시 대책 등이다. 이런 제한된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학술사상의 경향성과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문의 깊이를 더듬어볼 뿐이다.

노진의 학술 경향과 수준은 당대 사림과 또는 학자관료의 학문과 정치의식에 견주어 크게 두드러지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학문에서도 두

33) 이런 텍스트는 조선시대 문인이나 학자관료의 문집이 일반적으로 그리하듯 여러 장르를 망라하고 있지만 한 사람의 사상이나 학술의 수준, 내용을 더듬어보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시문을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미학이나 문학적 세계는 논외로 한다.

렸한 이론적 발전을 견인하거나 이론을 정립하여서 조선유학에 큰 족적을 남기지도 않았다.<sup>34)</sup> 이런 근본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보나 방계의 자료를 통해 노진의 학술과 사상을 그 윤곽이나마 더듬어볼 필요는 있다. 노진의 학문경향을 鄭蘊은 明體適用으로 정리하였다. 明體適用이라는 표현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두루 즐겨 썼는데, 명체적용의 학문이니 명체적용의 재주이니 명체적용의 요체이니 하는 식으로 어떤 인물의 학문이나 재능을 평가할 때 흔히 인용되었다.<sup>35)</sup> 이 표현을 여러 맥락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노진의 인물평에도 아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體를 밝힌다 하는 말은 학문을 깊이 닦았다는 뜻으로, 用에 이르다, 맞갖다는 말은 (이론을) 실용에 적절하고 적합하게 썼다는 뜻이니 일생을 학문탐구에 오롯이 바치고 옛 학문을 잇고 후학에게 열어준 학자가 아니라 시대적 전환기를 살아간 관료로서 성리학의 학문을 익히고 인격을 도야하고 그 성취를 바탕으로 관료로서 무난하게 자기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다.

제한된 자료나마 이를 통해 노진의 학술과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주로 서신을 통해 학술논쟁을 하고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기 이론을 심화해 나갔는데 노진에게도 이런 서신을 통한 학술논쟁의 흔적을 볼 수 있다.<sup>36)</sup> 노진은 龜巖 李楨과 格物의 해석에 관한

34) 우리 나라의 유학을 통사적으로 다룬 서적에서도 노진의 이름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유학통사를 총정리한 최영성의 『한국유학통사』에도 노진은 단 한 차례 언급되는데, 羅欽順의 『困知記』에 대한 盧守愼의 평을 李恒과 함께 비판했다는 짝막한 한 단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노진의 비평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최영성, 『한국유학통사』 상, 심산, 2006, p. 684.

35) 『明宗實錄』 명종 3년(1548) 9월 29일 기사에 洪彦弼에게 机杖을 하사하면서 교서를 내린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주석에 홍언필은 “성정을 연구하여서 명체적용의 학문을 깊이 쌓았고 문장을 화려하게 다듬어서 금성옥진의 문장을 휘둘렀다(研窮性情, 蘊明體適用之學, 綉繪詞藻, 擅金聲玉振之文).” 하였다.

36) 특히하게도 노진의 경우에는, 서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신을 통한 학술토론이나 학문 사상을 탐색하기는 어려운데, 疏筭에 오히려 그의 학문적 견해가 많이 드러나

토론을 진행하였다.<sup>37)</sup> 이 논쟁은 주자의 『大學』經 1장의 格物의 주석인 ‘窮至事物之理，欲其極處無不到也’와 ‘物理之極處無不到’와 格物 補傳의 ‘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를 둘러싸고 두 의미요소 사이에 어떻게 토를 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곧 ‘物理之極處’와 ‘無不到’ 사이에 토를 ‘-이(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에’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로 토를 달면 주격조사가 되어서 物理(極處)가 주체가 되고 ‘-에’로 토를 달면 처소격조사가 되어서 나의 인식주관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無不到를 두고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서 해독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것은 ‘理到’와 같은 맥락의 논쟁인데 요지는 내가 사물의 이치를 남김없이 탐구하였을 때 사물의 이치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아니면 사물의 이치가 저절로 다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해석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格物의 조어구조는 동사술어+목적어 구조이지만 物格의 경우에는 주어+(피동의) 술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조선의 학자들은 대부분 物格을 物至와 마찬가지로 ‘사물이 이르다’로 해석하여서 物理도 또한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퇴계는 기대승의 발언을 근거로 理를 體用의 관점에서 분석하여서 사물의 이치는 객관적으로 있지만 나의 인식주관이 남김없이 그 이치를 인식하면 나에게서 그 이치가 완전해지므로 理到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한다.<sup>38)</sup> 이 문제에 관해 노진의 견해는

있다. 이런 점에서 노진의 학술 사상을 연구할 때 그의 소차를 주요 텍스트로 삼을 수 있다.

37) 이정에게 보낸 또 한 통 편지는 제례와 상복에 관한 토론인데, 중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가 다른 점을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진은 예법의 규정을 따르되 정에서 우리나라와 시행해 온 것이라면 조건부로 굳이 폐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狀況追隨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姜翼에게 보낸 편지는 四勿을 둘러싼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아니고 勿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보인다.

38) 『良齋集』卷5 「溪山記善錄·上」. 先生言於德弘曰，吾初釋物格曰，於物格。或曰，物其格，似無妨。奇明彥亦言曰，朱子之說，多有理到物至之語。當釋曰，物其格云。因此更

無不到를 술부로 하는 세 구문의 일관성을 추구하면서 역시 내가 아무 힘을 쓰지 않아도 사물이 나에게로 와서 저절로 궁극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였다.<sup>39)</sup>

노진이 노수신과 주고받은 편지는 羅欽順(1465-1547)의 人心道心을 둘러싼 문제를 토론했던 것이다. 나흠순은 理氣混融一體說과 人心道心體用說을 주장하여서 程朱學을 새롭게 해석하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노수신이 적극 수용하였다. 그는 「人心道心辨」과 「困知記跋」을 지어서 나흠순의 이론이 正大, 精微하고 이전 학자들이 밝히지 못한 내용을 많이 밝혀내어서 정주학에 크게 공을 세웠다고 평가하였다.<sup>40)</sup> 그런데 노수신이 나흠순의 설을 소개하자마자 학계에서는 비평을 받게 된다. 이항은 노수신(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곤지기의 궤탄한 설에 혹하여서 쓸리듯이 쫓고 감히 시비를 가리지 못한다.’ 하고 비판하였다.<sup>41)</sup>

노진이 나흠순(과 함께 노수신)을 비판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나흠순은 人心과 道心을 각각 用과 體로 삼았다. 그런데 『書經』 「大禹謨」에 의하면 舜이 禹에게 천하를 물려주면서 人心은 惟危하고 道心은 惟微

---

思, 朱先生曰, 理雖在物, 用實在心, 蓋理之體, 具在於物上, 固不得來到於我, 其用之微妙, 實不外人之一心, 若窮此理, 則昭昭然盡到我胸中矣. 物其格之說甚善. 明彥雖未知此理之用到我之義, 知得至此, 幸甚幸甚! 理到와 無不到나 格物, 物格과 관련된 문제는 따로 하나의 연구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퇴계와 고봉 이후 상당히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런 해석은 근본적으로 언어학적 인식이 정교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창조적 오독이라 할 수 있다. 고전 문언의 한문과 문언 한문에서 속화하여 발전한 송대 백화체와 (조선시대) 한국어 언어세계의 차이를 섬세하게 인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한 諺解式 경전해석학의 문제는 한국어 발달과정이나 한국 유학 발달에서도 흥미 있는 분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해 힌트로 삼을 수 있는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이승환, 『횡설과 수설』, 휴머니스트, 2012, pp. 216-244, 참조.

39) 『玉溪集』 卷4 「答李龜巖剛而書」. 無不到之義, 三處皆同. 不可隨處而異視也. ……大抵物格云者, 格物而至於極, 則凡物之表裏精粗, 無不到之謂也. ……非初無用力而物來自格云耳.

40) 『蘇齋集』 卷7 「困知記跋」. 見其言正大精微, 多發未發, 大有功於程朱之門.

41) 『一齋集』 卷1 「與盧寡悔」. 今之士大夫, 惑於困知記, 詭誕之說, 皆靡然從之, 而莫敢是非. 可勝嘆哉.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순의 시대에 體用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를 사용했을까? 그리고 만약 體用의 관점에서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用(人心)을 먼저 말하고 體(道心)를 나중에 말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뀌었다. 또 나흠순은 도심과 인심을 해석하면서 “도심은 寂然不動한 것이라 지극히 정밀한 體이니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은미하다. 인심은 感而遂通하는 것이라 지극히 변하는 用이니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위태하다.”<sup>42)</sup> 하였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危와 微를 해석하는 데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순이 우에게) 정밀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가? 체와 용에 정밀하게 한다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는가?<sup>43)</sup> 이런 비평에 관해 노수신은 도심을 뒤에 놓은 것을 굳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리고 ‘기미는 연마하기 어려우니 정밀하게 하라고 하였고 깊이 살펴서 지극히 정밀하여서 쉬임이 없게 하는 것은 끝까지 이르기가 어렵고 미미하니 한결같이 하라고 했다.’<sup>44)</sup> 하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해 노진의 답은 없어서 더 이상 논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노진의 경세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로는 대표적으로 균전제와 봉당의 조정에 관한 설을 들 수 있다. 이들 텍스트는 심도 있는 경제적 저술은 아니다. 토지분배와 관련한 문제는 농경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의 가장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라도 모순이 없을 수 없다. 더욱

42) 『困知記』上. 道心, 寂然不動者也. 至精之體, 不可見, 故微. 人心, 感而遂通者也. 至變之用, 不可測, 故危.

43) 『玉溪集』卷4 「與盧真悔書」. 且至變之用不可測兩言, 其於釋危微二字之義, 果穩貼而無所病耶. 若果如是, 則所謂精之者何物耶? 於體用, 亦可着精字耶?

44) 『穌齋內集』 「懼塞錄·答盧玉溪」. 以余觀之, 至變於危, 至精於微, 更覺得穩貼有餘味. 蓋幾難研, 豈不危乎? 故曰精. 欲其察之審, 以反於至精而無雜也, 深難極. 豈不微乎? 故曰一. 欲其守之固, 以應乎至變而不貳也.

이 조선사회가 명종, 선조 대에 이르면 이미 中衰期로서 사회모순의 자정 역량을 상실하고 근본적인 변혁이 요구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한두 행정관료에게서 본질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노진은 역시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 관점에서 토지균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효과에 급급하지 말고 군주가 굳은 의지를 지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라고 건의하였다.<sup>45)</sup>

「調停辨」은 노진의 경제적 감각과 안목을 볼 수 있는 또 하나 텍스트이다. 1580년대에 이르러 조선정계에는 명종 대 권신의 전횡기와 그 이전부터 진출했던 구체제의 관료세대가 퇴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 관료가 정계를 주도하면서 점차 봉당이 형성된다. 1572년에 李浚慶(1500-1572)이 위독한 상태에서 올린 차자에 ‘봉당의 조짐’을 언급하여서 이이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았으나 이미 조정 신료들 친구세대 사이의 갈등은 기정사실이었다. 나중에 이이가 保合調劑를 힘써 추구하지만 死後藥方文 격이었다. 이런 역사적 정황을 감안할 때 노진이 송대 熙寧 연간(1068-1077)에 일어났던 봉당을 모티브로 삼아 봉당의 의미, 형성의 원인, 봉당의 폐해, 올바른 정치를 위한 여론의 형성 등에 관해 분석하고 한편으로 呂大防(1027-1097), 劉摯(1030-1098)가 調停說을 주장하고 구체제 인사들을 끌어들이 이면의 불가피했던 측면을 변호하였던 것은 흥미롭다.<sup>46)</sup> 봉당을 언급하는 것은 왕조사회에서는 체제에 도전하는 위험한 논의이지만 어느 권력집단이건 당파가 없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봉당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사회화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노진이 여대방, 유지의 정치적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45) 『玉溪集』 卷5 「均田議」 참조.

46) 『玉溪集』 卷5 「調停辨」 참조.

평가하면서도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수궁하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학문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 5. 맺음말

역사적 인물은 우리에게 우선은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 이미지가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고 왜곡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역사의 인물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고’ 청동이나 금속의 거울을 들여다보듯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 인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미지에서 출발하는 측면은 어찌면 불가피하다. 그러기에 역사적 소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신화와 설화가 나타나고 문학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역설적으로 ‘시는 역사보다 진실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까지나 신화나 설화의 이미지로 역사인물을 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아이 때의 ‘깃’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역사인물에 관해 신화적으로, 마치 ‘주례사평론’이라고 비아냥거리듯이, 아니면 ‘문중학’이라고 하듯이, 추앙할 필요도 없고 또 그리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역사 인물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그의 텍스트를 충실하게 독해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재소환하여 재평가하여야 한다. 고평가된 인물에게는 거품과 안개를 걷어내고 진면목을 봐야 하며 연구의 부족이든 자료의 빈약함이든 지금까지 저평가된 학자에게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얻어야 할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그것이 후대의 시점에서 과거의 학자, 역사의 인물을 벗하는(尙友) 우리의 임무이다. 옥계 노진도 재평가해야 할 인물이다.

鄭蘊은 『玉溪集』 서문에서 그의 생애와 학술사상의 전반에 관해 다음

과 같이 총평을 내리고 있다.

孝悌의 마음이 속에 쌓여서 사면의 소장과 정양을 위한 소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간절하고 측은하다. 군주에게 충성하고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쌓여서 경연에서 군주를 계몽하고 경계를 아뢴 내용으로 드러난 것은 성실하고 믿음직하며 환하고 분명하였다. 진실하고 거짓 없는 마음이 속에 쌓여서 만장이나 제문, 비명, 행장 등의 글에 드러난 것은 반듯하고 적실하며 전아하고 중후하여서 한 마디도 넘치거나 과장된 것이 없다. 율조리는 시문의 글, 편지글의 내용, 잡저의 여러 논설에 이르기까지 성정의 올바름을 얻었다. 정밀하고 은미한 뜻이 드러나고 사리의 온당함에 끝까지 이르렀으나 모두 내면의 침잠하고 순수한 것에 부합한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덕이 있는 사람의 말이라 하겠으며 그를 明體適用의 학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선생은 저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남은 원고가 많지 않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모두 人事에 어쩔 수 없이 쓴 것일 뿐이다.<sup>47)</sup>

그의 생애와 학술의 이력은 위의 평에 거의 드러나 있다.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며 온건하고 합리적인 행정가였고 憂國愛民의 지방관이었다. 그에게 드리워진 이미지는 당대에나 오늘날에나 효성이 지극하고 온화한 학자이며 관료이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간 까닭은 어쩌면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다. 유년기에 생활세계의 한 축이 되는 부친의 부재를 겪었고 여러 차례, 당시로서는 아주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척을 당했고 그의 전체 생애로는 중반기에 해당하나 사실상 청년 시기부터 맡겨진 노모의 부양과 일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힌 실존의 고통으로 인해 그는 일

---

47) 『玉溪集』序. 孝悌之心積於中, 而見於辭章養疏之中者, 懇切而惻怛, 忠愛之心積於中, 而發於啓沃陳戒之辭者, 誠信而光明, 眞實無僞之心積於中, 而凡著於輓祭銘誌行狀之作者, 端的典重, 無一言浮溢. 至於吟咏之詞, 簡牘之言, 雜著之說, 無不得其性情之正, 發其精微之意, 極其事理之當, 而皆符於在內之沈潛純粹者, 則眞所謂有德者之言. 而謂之明體適用之學者非耶! 先生不喜著述, 遺稿無多. 今其存者, 皆人事之不可已焉者也.

생 진취적이거나 투쟁적이거나 논쟁적이거나 혁신적 태도를 취하기 어려웠다. 그의 학술사상과 경제사상은 아직 꼼꼼한 독해를 필요로 하지만 그에 관한 지금의 평가로서는 역시 조선 중기 도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기보다는<sup>48)</sup> 아직은 사림 주도의 정치로 재편되어 가던 명종, 선조 시기 사림과의 진출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스스로 사림과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규정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겠다. 『논어』, 『대학』, 『근사록』, 『심경』 등을 늘 가까이 하고 『대학』의 16자를 평생 학문의 중지로 삼고 程朱의 학설을 신뢰하였던 인물로서 전형적인 16세기 문인, 관료로서 ‘부지런히 배우고 문기를 좋아하며, 인자하고 은혜로우며 어버이를 사랑한(勤學好問曰文, 慈惠愛親曰孝)’ 일생을 살았다고 한 당대의 평가는 적절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艮齋集』
- 『困知記』
- 『孟子』
- 『明宗實錄』
- 『史記』
- 『石潭日記』
- 『宣祖修正實錄』
- 『蘇齋集』
- 『玉溪集』
- 『一齋集』

---

48) 최석기, 「玉溪 盧禎의 志趣와 學術」, 『東洋漢文學研究』 第28輯, 2009, p. 366.

이승환(2012), 『횡설과 수설』, 휴머니스트.

최영성(2006), 『한국유학통사』 상, 심산.

강정화(2014), 「玉溪 盧禎의 삶으로 읽는 정신세계」, 『남도문화연구』 제41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김근태(2014), 「玉溪 盧禎의 시에 나타난 풍경 고찰」, 『漢文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신태영(2009), 「玉溪 盧禎 시의 미의식」, 『경남문화연구』 제30집, 경남문화연구원.

이영숙(1995), 「玉溪盧禎研究」,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재훈(2008), 「玉溪 盧禎의 정치사회적 활동 -명종·선조 연관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45집, 한국사상문화학회.

최석기(2009), 「玉溪 盧禎의 志趣와 學術」, 『東洋漢文學研究』 第28輯, 東洋漢文學會.

## Okg-ye Roh Jin's Life and Academic Thoughts

Kim, Tae-Wan\*

Okg-ye Roh Jin is a representative civil servant official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is called *Myeongsin*. Although he did not leave a significant historical mark in politics, culture, or academic circles, he was recognized as a very moderate and reasonable figure at the time. His life was unfortunate, as he lost his father when he was young, his brother, and many of his children died young until he reached adulthood. As a result, he treated his widowed mother with utmost sincerity, and filial piety became an image that symbolized his life. It has been done. This unfortunate world of life can be seen as playing a decisive role in shaping his life and worldview, in which he faithfully fulfilled his role as a moderate and rational bureaucrat, did not overdo himself, cared for his elderly mother dearly, and lived the given life comfortably.

As an intellectual of the nobility of the local village, Roh Jin learned basic academics, passed the *Saengwonsi* exam, and studied abroad at *Sungkyunkwan*, where he honed his academic skills by associating widely with famous figures of the time. After he entered the civil service and became a government official, he remained faithful to his duties as a typical scholar-official. However, rather than being interested in personal achievements such as cultivating academics and cultivating one's mind, he focused on the administration and edification of the local community, improving customs, and improving the discipline, order, and cultural level of the local community. As a Neo-Confucian scholar, Roh Jin debated with

---

\* Special Researcher, Institute of Honam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E-mail: youngok0215@hanmail.net

scholars of his time about the major problems of Neo-Confucianism, such as the *Study Things to Acquire Knowledge*(格物致知), the debate of *Human Mind And Moral Mind*(人心道心), and as a government official, he presented reformative and moderate solutions to the land system and corruption from his own realistic perspective.

He was a sincere, moderate and reasonable administrator, and a local official who loved his country and people. The image cast of him, both in his time and today, is that of an extremely dutiful and gentle scholar and bureaucrat. We can probably guess why he lived this kind of life. During his childhood, he experienced the absence of his father, who was an axis of his life, and was treated as a misfortune on several occasions, although it cannot be said to be very unusual at the time. His entire life corresponds to the middle period, but in fact, he was supported by his elderly mother and followed his life, entrusted to him from his youth. Due to the pain of existence that plagued him throughout his life, it was difficult for him to take an enterprising, combative, controversial, or innovative attitude. Due to the relative lack of primary texts,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reveal the full extent of his academic and governance thoughts. Therefore, rather than being one of the *moral Neo-Confucianists*(道學者) of the mid-Joseon Dynasty, he can be defined as a person who played a certain role in the advancement of the *Sarim* fac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and King Seonjo, when politics were being reorganized into *Sarim*-led politics, and who had the identity of the *Sarim* faction himself.

### Key Words

Filial piety, absence of father, civil servant bureaucracy, worry about the country and love the people, identity of *Sarim* faction

논문접수일: 2024.5.31., 심사완료일: 2024.6.14., 게재확정일: 2024.6.18.

